‘역대급 타격’ 우리가 한 거 맞아?

타이거즈, 야구史 새로 쓰며 6년만에 전반기 1위 확정

“미쳤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KIA 타이거즈의 ‘미친 타격’이다.

KIA의 7월은 ‘역대급 타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 2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시작된 두 자릿수 득점은 역대 최다인 4경기를 넘어 지난 5일까지 8경기 연속 이어졌다.

8경기 연속이라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하루 쉬고 다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도 놀랍다.

지난 6일 SK전 5-3 승리로 ‘8’에서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 마침표를 찍은 KIA는 지난 7일 우천으로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기록이 중단되기도 했고, 하루 경기를 쉬는 등 일반적인 타격 사이클을 보면 타격의 하락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8일 KIA는 kt 위즈의 로치를 상대로 다시 한번 안타와 홈런을 몰아치며 20-8의 대승을 만들었다.

다시 기록된 두 자릿 수 득점, 심지어 3회 12점을 몰아내면서 지난 5일에 이어 ‘1이닝 12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재연했다. 또 이날 경기 전까지 1만9000타점에 19점이 부족했던 KIA는 하루 만에 남은 타점을 넘치게 채우면서 역대 두 번째 1만9000타점 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맹공에 대한 선수단의 반응도 “미친 것 같다”다.

타석 밖에서 팀 공격을 지켜보는 투수 김윤동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데 정말 미친 것 같다”며 “코치님들이 연속 안타가 쉽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승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팀 타자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웃음). 이런 장면은 다시 못 볼 것 같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진을 털고 ‘미친 타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이범호에게도 야구 인생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타격이다. 베스트 멤버들이 바탕이 된 힘이라는 평가다.

“본능적으로 야구를 잘할 줄 아는 선수들이 모여있다. 이런 멤버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잘 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다. 선수단 미팅을 하면 김민호 (수비) 코치님이 수비 안 해도 되니까 공격하라고 농담을 하신다”며 웃은 이범호는 “우리가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하면서 허프(LG), 켈리(SK) 등의 훌륭한 투수들을 만났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전날 잘 치고 다음 경기에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쳐주고 나가면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1, 2, 3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범호의 이야기대로 KIA는 이명기-김주찬-버나디나로 이어지는 막강 1-3번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는 ‘톱타자’ 이명기는 “분위기가 올라오면 집중이 되고 그런 게 있다. 당연히 안타를 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 그리고 내가 못 쳐도 뒤에 타자들이 쳐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편하게 타석에 서게 된다. 내 뒤에서 감 좋은 (김)주찬이 형, 버나디나가 좋으니까 편하게 한다”며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있으실 것 같다”고 웃었다.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 세터와 중심 타선만 뛰어난 것은 아니다. 최형우와 안치홍, 나지완을 지나면 이범호가 기다리고 있고 9번에는 ‘타율 1위’ 김선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8일에는 안치홍이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김선빈도 발목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KIA는 ‘차포’ 없이도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다.

결정적인 활약의 서동욱과 매서운 최원준 등 타선이 고루고루 강렬하게 터지고 있다.

고졸 2년차 ‘막내’ 최원준은 “최근 우리 팀 타격을 보면 신기하다. 타순만 보면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다”고 선배들의 활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반대로 선배들도 최원준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다. 김선빈의 발목 부상으로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최근 두 경기에서 최원준은 연달아 3안타 경기를 했다. 시원한 홈런까지 기록하는 등 누구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타순이 구축됐다.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환호시킨 뜨거운 타격. 대졸 신인인 사이드암 박진태는 “정말 놀라운 경기들이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록을 세웠던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KIA는 8일 승리와 함께 남은 일정과 상관없이 전반기 1위 자리를 확정했다. 길고 험난했던 원정 9연전을 뜨겁게 장식한 KIA의 ‘미친 타격’은 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팀 3800홈런 최원준 “세게 치자 생각했죠”

헬멧 세러모니 버나디나 “같이해서 좋아요”

덕아웃 톡톡

▲세게 치자고 생각했어요 = ‘막내’ 최원준이 역대 2번째 팀 380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최원준은 지난 8일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7-0으로 앞서 3회 1사에서 로치의 투심을 공략해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앞서 김민식의 스리런에 이어 연달아 담장을 넘기며 백투백 홈런을 만든 최원준은 팀 3800번째 홈런까지 동시에 기록했다. 최원준은 “오랜만에 나온 홈런이라서 기분이 좋다. 세게 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에서 터진 홈런은 최원준의 시즌 2호포이기도 하다. 최원준의 2017시즌 마수걸이 홈런은 지난 5월 28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기록됐다. 이날 3번의 만루 찬스에서 범타로 물러났던 최원준은 연장 11회말 찾아온 4번째 만루 찬스에서 롯데 윤길현을 상대로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트려 화제의 인물이 됐었다.

▲꼭 최민식이라고 하네 =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기태 감독의 웃음보가 터졌다. 김 감독은 옆구리가 좋지 않아 엔트리에서 말소된 안치홍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된 최정민의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발도 바르고 활기차게 하는 스타일이다”며 최정민에 관해 이야기하던 김 감독은 “최민식과 마산중, 마산고 친구라고 하더라”고 말한 뒤 이내 웃음을 보였다. 김 감독은 “꼭 최민식이라고 하더라”며 포수 김민식의 이름을 ‘최민식’으로 잘못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레이드를 통해 이명기, 김민식과 함께 KIA로 온 최정민은 8일 3회 대수비로 들어간 뒤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했다.

▲같이해서 좋아요 = 버나디나의 독특한 세러모니가 덕아웃을 점령했다. 버나디나는 홈런을 치고 나서 손으로 헬멧을 잡은 채 그라운드를 돈다. 지난 6월 버나디나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평소에 쓰던 헬멧이 커진 게 이유였다. 헬멧이 벗겨질까 봐 잡고 뛰느라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버나디나를 상징하는 세러모니가 됐다. 이제는 선수들은 물론 김기태 감독도 홈런을 치고 들어오는 버나디나를 맞을 때 ‘헬멧 세러모니’를 할 정도다. 이에 버나디나는 “지금은 머리가 자라서 헬멧이 맞다(웃음). 우리 팀원들이 같이 헬멧 세러모니를 해주는 게 좋다. 나날이 발전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亞육상선수권 우승 정혜림 “세계선수권서 한국新 도전”

〈광주시청〉

여자 100m 허들 13초 16

8월 런던 선수권 티켓 확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서 기뻐요. 세계선수권대회 티켓까지 얻을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인도 오디샤주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허들 100m허들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정혜림(광주시청·30)은 경기 직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혜림은 이날 결승경기에서 13초 1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육상연맹의 기준기록(12초9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날의 성과로 오는 8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출전 자격까지 따냈다.

경기 당시 정혜림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시즌이 시작된 이후 국내·외에서 열리는 많은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는 등 좋은 성적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계대회의 출전권이 걸린 경기였기에 최선을 다해 뛴 결과 이같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비슷한 연배의 라이벌인 일본의 키무라 아야코와 중국의 왕도우를 각각 0.14초와 0.2초차로 제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정혜림은 “예선전 기록이 좋아 내심 결승 기록에 욕심을 내고 싶었다”며 “스타트는 좋았지만 4번째 허들에서 잠깐 실수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은것 같다. 결승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고 말끝을 흐렸다.

부산 토성초 4학년 때 장거리 선수로 육상을 시작한 정혜림은 스피드가 좋다는 주변의 권유로 단거리로 전향했다.

이후 부산중앙여중, 부산체고를 거쳐 안산시청, 구미시청, 제주시청에 이어 2016년 광주시청에서 둥지를 튼 정혜림은 심재용 감독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왔다.

지난 동계기간에 체력과 근력훈련 등을 소화했고 기술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13초 중반대의 그의 기록이 2017 시즌에는 평균 13초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게 됐고 한국기록(13초00)에도 성큼 다가서는 등 세계 무대로의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혜림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했던 기록을 깨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8월 런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인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휴식 중인 정혜림은 11일 오후 귀국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국영 日 육상 우승 “세계선수권 이상無”

‘신기록의 사나이’ 육상의 김국영(광주시청)이 일본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 우승했다.

김국영은 9일 일본 홋카이도현 삿포로 아쓰베쓰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제30회 남부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 B조에서 10초21(+2.4m)을 기록했다.

지난 번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때 세운 10초07에는 미치지 못한 기록이다.

일본육상연맹 주관하에 자국선수끼리 A조 결승을 치르게 하고 오픈경기 참가선수에게는 B조결승 참가만 허용한 이번 대회에서 김국영은 B조에 출전해 10초21(+2.4m)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국영과 함께 대회에 출전한 박태경(광주시청) 플레잉코치는 “바람이 많이 불어 기록작성에는 힘든 경기였다”며 “이번 대회는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게 아닌 런던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과정이라 생각하고 참가했기에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국영이가 지금 페이스가 좋다. 일본에서 10초08

뛴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제 적수가 없는 것 같다”며 “런던에서 예선통과와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10일 귀국 후 국내훈련을 한 뒤 26일 런던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